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0호 [루계 제25088호] 주제 104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시의 여러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남포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성껏 바친 남포시의 여러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로 영원히 태양으로 높이 떠오르며 불타는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남포수산사업소, 운천분사업소, 저배인 박성진은 절세위인들의 통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순결한 향평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의의식을 간직한 남포시인민위원회 김수영은 풀격대원으로서 달은 일에 헌신하면서 지원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었다.

남포민거리화물운송자동차운수대

로동자 리정해, 남포시인민위원회 부원장 강정남, 남포시전자사업부연구소 실장 김경석, 대안구역 출판물보급소로동자 남일, 대안구역으로 보수수리대로동자 최현옥, 금사수산협동조합로동자 한경남은 성의껏 마련한 많

은 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인 고향을 도시로 꾸려주시기 위해 불懈불휴의로 고와 온갖 심혈을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남포수산사업소로동자 강현우, 남포제분공장 직장장 정통숙, 남포시해사감독처장 철철웅도 충정의 한마음을 바치였다.

항구구역 상대두동 951m반 범찰화와 남포시인민보안국 산하단위 군관들이 리정우, 리정민은 절세위인들의 통상을 더 밟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크나큰 경직속에 받아안은 여여 단위 일군들과 민족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혁명활동소식을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활동소식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립전기기관소에서 새롭게 감사를 주시였으며 이 기업소가 현대적인 교통수수단들을 생산하는데서 자기들앞에 밝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 가리리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라오스통신은 비에티안 타임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제리아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이지 도이월란드번체연단 인터네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매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전통과 제동 및 조종장치를 제작실험된 지하전동차의 형태와 색감, 기술적특성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이께서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수 있도록 전동차를 잘 만들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하전동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열을 빛나는 현설로 꽂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항상에 이바지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유행에 1 800여

의 메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

률을 통해 기념사진을 찍으신

로씨야의 데웨-로쓰통신, 파키스탄신문 『월드 트리뷴』은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미래과학자리를 물려보기로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물공사 차음이었지만 려단지 위원들과 청년들격대원들은 당시 안전준지와 배령으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품에 강하게 끌고나갔다. 려단에서는 강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타입을 전행할 목표밑에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또 한 철근가공과 조립, 흙굴제작을 선행시키고 대대별 공사분단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였다.

청년들격대원들은 공사장으로 향한 기동로가 매우 불안하여 기계수단의 도움을 전혀 받을수 없는 조건이지만 백두청출발에 부정성으로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청년들격대원들은 공사장으로 향한 기동로가 매우 불안하여 기계수단의 도움을 전혀 받을수 없는 조건이지만 백두청출발에 부정성으로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청국회 결정서를 끝나면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터널에서 밖으로 나온 청년들격대원들은 흙굴제작을 강제로 험난한 터널을 깊숙이 파고나갔다.

#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전례없는 대경사로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다시 한번 대승리를 !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얼마나 뜻깊은 우리 당의 혁사적

인 대회인가.

당창건 때 세운 당의 위인을 높이 모신 그려나온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터치면 일심단결의 환호성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소집에 관한 소식으로 더욱 옥 큰 메아리를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승승으로 이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지대본입니다.』

단결은 나라와 민족의 위력이며 인간의 고귀한 정신도덕적부이다.

『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이름다운 미래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단결의 그 위력을 그 재부, 그 밝은 미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걸출한 원인을 보서야 인민의 단결이 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꼳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이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는 바로

절세의 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파라 우리 혁명의 철학자인 본인을 맞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마련하는 혁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당창건 70돐의 환희와 격정이 그 것을 힘 있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영광을 드리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해빛 같은 밝은 미소를 담으시고 달례를 보내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

진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화폭이었다.

10월의 대축전장에서 파시된 일심단결의 그 거대한 위력을으로 당제 7차대회에로 향한 새로운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 당시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

을 시내대로 헤어나온 파악기술전당을 비비로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다. …

파연 무엇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그리도 비상한 속도가 창조되며 되었는가.

『선군조선의 철학자인 본인 일심단결이 여기에 명백한 대답을 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파라 새로운 주제 100년대와 더불어 홀려온 나날

을 더듬어 볼수록 정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정도자의 두려움에 절통같이 굳게 뭉쳐 나아가는 이 위대한 혼연일제에 와서는 원수님께서는 환공된 과학기술을 들여보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저 보기만 하자고 해도 이렇게 시

간이 걸리는데 이런 빙대한 건설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느냐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얼마나 수고하였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물드는 것이다. 그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 열정과 불굴의 정신력, 불타는 애국심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이 당시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

을 시내대로 헤어나온 파악기술전당을 비비로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다. …

파연 무엇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그리도 비상한 속도가 창조되며 되었는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강위력한 추진력인 일심단결!』

정녕 그것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재부이며 철학자인 철강의 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힘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려 하시었듯이 우리 원수님께서 있어서도 단결은 곧 인민의 운명을 끌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무한한 정이고 그들의 행복을 최상의 수준에서 꽂아주시는 혁신적인 사랑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전 12월의 마지막날을 앞두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홀륭히 일떠선 마식령수기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이 리용하는 편지장을 떠나는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웅적 신화들을 편이어 창조하면서 최후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한국의 손길 아래 우리 군대는 생산과 경제를 높여온 승리에 이르렀다. 그 비법하고도 현명한

#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총궐기해나서자

## 총돌격전의 신호포성은 울렸다

내각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 일군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펼치며 백승의 역사만을 아로새겨갈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펴놓은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전국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폐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풍물격전에 진입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들의 양강된 열의와 압으로의 투쟁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내각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긍지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 있는 전국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세가 대단하다고 본다.

내각 제1사무국 부국장 박병종: 그렇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언제나 결사의 실천으로 헌신해온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인민만이 지니고있는 정신적특질이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보니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불도 가니 마냥 끓이 범지 먼 1980년의 그 가슴벅찬 하루 하루가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그때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0년 신년사에서 세시하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력을 의와 빛나는 혁력적성과로 맞이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달고 일터마다에서 전폐하는 생산적양상을 일으켰다. 1980년 1월초 당시

회원공작기계공장 종업원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축

사회주의 경쟁》을 벌였던 것을 전국의 공장, 기업소로 동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그들이 주커든 중

산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번져

갔다. 당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전국의 근

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

회에 즐거운 당중앙위원회 구호

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1980

년 7월부터 전쟁원 100일

전투기간 우리 나라 공업생산력

사에 일찌기 없었던 자랑찬 기

록을 세웠다.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

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1980년의 그때처럼 하루하

루를 맞고보낼 열의에 넘쳐 총돌

격전의 힘찬 보폭을 내짚고있다.

전력공업성 부상 김용철: 각자 발전소일군들과 함께 계급

는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수력발전부문

로동계급은 물관리와 설비운영

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주최는

힘을 넣으면서 수차남개들을 새

고 교체하여 발전효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각자 화력발전소들

에서도 여러 호기들의 대보수를

풀어내거나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면서 중산의 지름길을 마련해가

고있다.

금속공업성 부상 리은천:

김책 철련합기업소에서는

한길안전공장을 비롯한 100여

대상의 현대화, CNC화를 완성

하는데 이어 아금공업의 현대화,

파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천리마제

강현합기업소에서는 여러 공정

에 고온공기기술소를 포함하여

받아들이기 위한 힘懈전을 벌

록을 세웠다.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

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황제철련합기업소로동계급

발전소와 청전강계단식발전소

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누구라없이 힘찬 혁신과 대동력기지에 보낼

화력생산을 말고있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대상연기계공장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은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

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수령님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내

수령님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 10월의 체육열풍 –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승리의 메아리

##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의 차왕찬로정을 되새기며

천만군민이 승리자의 긍지로 높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 명절로 빛나게 경축한 10월은 대항군중체육대회 – 15년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더욱 뜻깊고 의미로 깊은 달로 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체육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은 자신의 사업입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애전민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조국 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격동적인 열흘, 열

흘남이 흘렀다. 온 나라가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장에서 러저오르는 경쟁의 함성에 마음을 학치며 거세한 체육열풍으로 들끓었다.

10월의 체육열풍,

당창건 70돐, 승리자의 대축

전으로 하여 역사에 길이 빛날

올해의 10월을 우리 인민은

3번째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

라는 체육열풍으로 또다시 환희

롭게 경식하였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전민의

체육대회는 오직 위대한 우리의

조선로동당, 우리의 사회주의

국민이 평화로운 인민사랑,

인민총중의 체육무대이다.

## 세상에 류례없는 인민체육의 새 화폭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 역사에 전국도대 항체육 경기라는 뜻깊은 날들이 생겨난 것은 주제 102(2013)년 이었다.

마로 이해의 10월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우리 체육의 발전역사에 처음으로는 전국도대 항체육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남북도와 함께 남북도, 함경북도, 자강도와 양강도, 강원도, 남포시에서 올라온 근 10000명의 선수들과 1000명의 응원단까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전국도대 항체육경기에서는 남자봉구, 여자배구를 비롯한 각종 체육경기,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체육인 씨름, 바줄당기기 그리고 체육유화 학생기기 등으로 전국도대 항체육경기 기록으로 기록되었고, 특히 체육경기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런가하면 봉구경기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종목별 경기들에 참가한 선수들의 나이와 직업 등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매우 이례로였다.

바줄당기기 경기에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가 성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별내 항경기를 조직하는 것인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좋다고 하면서 경기 종목이며 시상, 도별순위경기 등으로 이루어져 전국도대 항체육경기 대회를 주최하였다.

정령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이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기원을 펼치시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인민을 더욱 힘 있는 종목으로 해마다 달려왔다. 유행에는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인의 혁명한 령도의 손길 아래로 통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 역사에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도대 항체육경기 가 진행되게 된것이었다.

나리일에 그처럼 비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에 몸소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어 전국도대 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를 보아주시고 몇내 민족에서 하며 앞으로 도대 항체육경기를 정예화하고 민족체육에 힘을 넣어 누구에게나 전망한 체력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하여 완료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봉구경기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였다.

종목별 경기들에 참가한 선수들의 나이와 직업 등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매우 이례로였다.

바줄당기기 경기에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가 성

되었고, 특히 체육경기에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가 성

되었고, 특히 체육경기에는 각 도(시)체육단팀 사이의 경기로, 배구, 농구, 탁구, 바둑, 바줄당기기 등은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없는 응집력은 2년전에 처음으로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뜻깊은 10월을 드리면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전국도대 항체육경기로 진행되었다.

그 한

# 원쑤들에 대하여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 반제 반미 교양, 계급교양의 거점 수산리계급교양관을 찾아서

### 흡혈귀 미제를 단죄하는 분노의 고발장

미제에 의해 억울하게 생죽을  
을 당한 평흔들이 웨치는 복수  
의 철규가 끝없이 울려나오는  
수산령이다.

수난의 역사, 피의 역사로 비  
껴안고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수산령.

얼마전 우리는 조선전쟁을 일  
으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여온  
풀혈귀 미제의 악수적 본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수산리계급  
교양관을 찾았다.

위 대 한 명 도 자  
김 정 일 동 지 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  
들과 한화들을 이고 같이  
살수 없으며 적들파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자들과 함께 1호실에 들어  
섰다.

1호실에는 오래전부터 조선  
강집의 야당밀에 침략의 선전대  
가 되어 수산령에 기여한 미국  
선교사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을 맡아놓은 역사적자료들  
이 전시되어 있었다. 『자선』과  
『박애』의 활을 쓰고 해방전  
수십년간이나 이곳에 토고하였던  
노적 굽종사상파 송미사대  
의식을 펴뜨리며 친미분자들을  
길러낸 미국선교사들,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행동하였는가  
를 전시된 페방당사진들이며 성  
경책, 부여진 실자가 그대로

날날이 고발하고 있었다.

이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수산령에서 저지른 국악무도한  
살인만행을 자료적으로, 응변적  
으로 보여주는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의 분노는  
더욱 끓어올랐다.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키기 이곳  
수산령을 강점한 기간은 40여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에 주민의 3분  
의 1에 해당되는 1,0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잊어 올  
리기조차 꿈꾸고 짐승도 낮을  
불릴 가장 암울적인 살육방법으  
로 무참히 학살하였더니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

당치와 들통에 머리를 깨거나 대  
못을 박고 떠돌, 통나무로 짓눌  
려죽이고 사지를 찢고 도끼로  
팔다리를 자르거나 토막쳐 죽이고  
시뻘겋게 탈운 인두와 쇠코챙  
이로 지켜죽었으며 일신부의 배  
를 가르고 태아까지 고집어내며  
죽이는 등 잔인무도한 살륙수법  
은 무려 100가지가 넘었다.

대못과 베루못이 박혀있고 꼭  
풀이에 껹혀진 머리풀, 고무  
신을 신은채로 잘려온 발, 불에  
타다남은 머리칼 등 보기만 해  
도 물서리치는 사진자료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살륙

만행이 얼마나 암울이었는가  
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잡이에 이끌리 난 적들  
이 오영수당세포위원장을 제포  
하였습니다.』

작들이 간행한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사의 목소리도  
격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그들  
제포하자 『국립백성이』를 잡았  
다고 하면서 그의 머리를 도끼로  
풀어 놓았습니다.

장고에 가두어 넣고 야수적으로  
분여해준 크나큰 음식에 보답할  
마음안고 많은 애국미를 바친 열  
성농민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로  
하여 온 가족이 멀살되고 어떤편  
마저 생죽을 당하지 않으면 일  
되였다. 뼈도 채 굳지 못한 연약  
한 몸에 실리는 무게에 고통스러  
워 토끼개로 머리칼을 강아 모  
조리 끓여놓고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거나 통해 절려죽였으  
며 7살과 5살밖에 안되는 어린  
식식들의 발바닥과 가슴에 대못  
을 박아 학살하였다.

야만의 무리들은 그것으로도  
성자치 않아 그들의 시체를 도끼  
로 다시 토막져서 개울을 건너는  
정경들일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건너다니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광복원쑤  
들은 이렇듯 한놈한놈이 다 피  
를 끌기로 인간백정, 인두겁을  
쓴 8살짜리 아이들이...

격분한 참관자들의 발걸음은  
한장의 그림앞에서 또다시 오래  
도록 멈추어졌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인민군대의 세진재よ수산령  
에서 쫓겨나기 전날 밤에만  
4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소녀애 를 웃을 빛겨 무게 가  
여려운 잘되는 연자방으로 사  
정없이 깔아죽인 귀족같은 만행  
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었다.

특식을 짖는 연자방아가 살인  
흉기로 될을 어찌 알았겠는가.  
해방된 조국땅에서 토지를

분여해준 크나큰 음식에 보답할  
마음안고 많은 애국미를 바친 열  
성농민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로  
하여 온 가족이 멀살되고 어떤편  
마저 생죽을 당하지 않으면 일  
되였다. 뼈도 채 굳지 못한 연약  
한 몸에 실리는 무게에 고통스러  
워 토끼개로 머리칼을 강아 모  
조리 끓여놓고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거나 통해 절려죽였으  
며 7살과 5살밖에 안되는 어린  
식식들의 발바닥과 가슴에 대못  
을 박아 학살하였다.

야만의 무리들은 그것으로도  
성자치 않아 그들의 시체를 도끼  
로 다시 토막져서 개울을 건너는  
정경들일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건너다니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광복원쑤  
들은 이렇듯 한놈한놈이 다 피  
를 끌기로 인간백정, 인두겁을  
쓴 8살짜리 아이들이...

격분한 참관자들의 발걸음은  
한장의 그림앞에서 또다시 오래  
도록 멈추어졌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인민군대의 세진재よ수산령  
에서 쫓겨나기 전날 밤에만  
4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창고에 가두어 넣고 야수적으로  
분여해준 크나큰 음식에 보답할  
마음안고 많은 애국미를 바친 열  
성농민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로  
하여 온 가족이 멀살되고 어떤편  
마저 생죽을 당하지 않으면 일  
되였다. 뼈도 채 굳지 못한 연약  
한 몸에 실리는 무게에 고통스러  
워 토끼개로 머리칼을 강아 모  
조리 끓여놓고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거나 통해 절려죽였으  
며 7살과 5살밖에 안되는 어린  
식식들의 발바닥과 가슴에 대못  
을 박아 학살하였다.

야만의 무리들은 그것으로도  
성자치 않아 그들의 시체를 도끼  
로 다시 토막져서 개울을 건너는  
정경들일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건너다니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광복원쑤  
들은 이렇듯 한놈한놈이 다 피  
를 끌기로 인간백정, 인두겁을  
쓴 8살짜리 아이들이...

격분한 참관자들의 발걸음은  
한장의 그림앞에서 또다시 오래  
도록 멈추어졌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인민군대의 세진재よ수산령  
에서 쫓겨나기 전날 밤에만  
4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전에도 이곳 수산리에서  
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의해 학살된  
수많은 애국자들의 유해와 유물  
들이 또다시 밝혀졌다.

그렇다. 역사의 진실은 가리  
울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자선』과 『박애』란 허울

우리는 흡혈귀 미제에 대한 불

뿐이고 피를 즐기는 두발가진  
승냥이, 이것이 미제의 진짜

물풀이며 침락파 살륙이야말로  
미제의 변할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을 수산령은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고발하고 있었다.

우리는 흡혈귀 미제에 대한 불

리는 증오를 안고 이곳을 떠났다.  
건물의 벽과 페인트는 원한  
의 역사로 그대로 비껴 암고  
붉게 물든것만 같은 수산리계급  
교양관은 차장밖으로 걸친 멀어  
제값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살인귀 미제를 단죄하는 역사의  
고발장으로 더욱 뚜렷이 안겨  
들었다.

글 본사기자 리건 일  
사진 본사기자 리동 규

### 피묻은 미국의 십자가

이곳에서의 놈들의 행동은 보다 짐요  
하였다.

놈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중요한  
도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령  
(당시)에 무려 6개의 교회당을 세웠  
으며 이곳에서 십자가를 훼손하는데  
서 사람들을 숨기며 사상대주의 사상과  
노예적 굽종사상을 퍼뜨렸다.

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  
인 일시적후퇴시키기 이곳에서는 친미  
침략주들이 그 어느곳에서 보다도  
악랄하게 행동하였으며 수많은 사람  
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강점  
기 시작한 미국선교사들은 물론  
교회당들과 학교, 병원들을 끊어놓고  
이를 통하여 수십년 동안이나 『자  
선』과 『박애』를 퍼들며 사람들의  
정신을 부식시켰다.

수산령도 폐허가 아니었으며 특히

이곳에서의 놈들의 행동은 보다 짐요  
하였다.

피에 젖은 미국의 십자가의 역사는  
미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만도 해방전 미국선교  
사들은 십자가를 걸려있는 교회당과  
병원, 학교들에서 조선사람들에 대한  
악질주들이 그 어느곳에서 보다도  
악랄하게 행동하였으며 수많은 사람  
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강점  
기 시작한 미국선교사들은 물론  
교회당들과 학교, 병원들을 끊어놓고  
이를 통하여 수십년 동안이나 『자  
선』과 『박애』를 퍼들며 사람들의  
정신을 부식시켰다.

수산령도 폐허가 아니었으며 특히

공화국에 대한 종교침투책동에 걸친  
기계 매달리고 있다.

적들은 우리 내부에 십자가와 성경  
책을 비롯한 종교관련 물들을 려여가  
지 방법으로 들이밀려고 획책하면서  
앞으로 『하느님』을 믿는 『교인』  
들이 많아지게 되면 『복지권은 저절  
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채권대  
고 있다.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리듬』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밑에 교묘한 방법으로 종교를 전  
파시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  
키고 나아가서 저들의 침략책동에 유  
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상투적인 수법  
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실히 증명  
해주고 있다.

미국이 내훈드는 십자가는 세계제  
제전략실현수단의 하나이며 그에 활  
상을 가지게 되면 피눈물만이 흐르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본사기자

### 단상록

### 이땅에 남긴 지 을 수 흔적은

### 돌찌기

수산리계급교양관의 유물전  
시대에는 이렇게 썼여 있었다.

『국자들의 죄를 풀여 끌  
고나니면서 두드ליך 북』

모서리는 다 닳고 가죽  
은 젖어 져 자기의 본색을

바로 그날부터였다. 우리  
공화국정권하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미제수단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애국자들의 죄를 풀여 끌고  
나온 바로 그날부터였다.

진복을 바라보는 나의 귀전  
에는 그날의 저주로운 북소리  
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찢어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수산리의 북은 이 세상 그 어  
느 북소리로 대신하지 못  
하는 거대한 음향으로 이  
나라 산전에 매 아리처  
울리며 북수자들의 실장  
을 세차게 흔들고 있다.

수산령의 고발장의 절규,  
우리 북수자들의 흔적은  
방세를 담아 계급교양관의  
북은 언제나 북을 풀고 허물  
지 못하는 거대한 진영으로 이  
나라 산전에 매 아리처  
울리며 북수자들의 실장  
을 세차게 흔들고 있다.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밭이  
들썩한 북소리에 담았을 것  
같은 북!

그날부터 비단 인류문명의  
고발한 유산인 북만이 아닌  
이 나리의 농구들이, 창조와  
건설에 힘써온 북을

##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내외의 관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북파 남사이의 출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로동자축구대회는 판계개선의 소중한 밀기터미 되었다. 전쟁이나 평화를 판가름하는 위기 알발의 순간에 마련된 기회이기도 순번치 않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실이었기에 더욱 그려졌다. 지금은 애달로 북파 남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의 획기적 국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파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벌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오늘 북남관계가 확고히 판계개선의궤도를 타는가는 미는 전적으로 북파 남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린하는가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판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로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서 새롭게 써나가려는 의지를 안고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왔다.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여러 기회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좋은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회복, 협력의 키도 우는데서 없이 탈선하게 된 원인은 앞에서는 합의하고 들어았어서는 외세의 장단에 놓아나며 판소리를 하는 남조선당국의 모순적인 태도와 이중적인 자세에 있다. 협에 한 강정과 소소한 리익에 사로잡혀 민족의 밝은 장래에 저해를 주는 행위에 이제는 결단과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판계개선은 결코 어느 일방의 리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한 것이다.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에 협의의 웨침이다. 북파 남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려의 통일문제를 해결 하려는 성실한 힘과 자세를 가지고 판계개선에 힘하여 하며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일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끌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언제든지 민족의 미리우며 재난의 검은 구름을 물이울수 있다는 교훈을 깨닫는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통족사이의 대결과 긴장계화를 걸고 버리지 않으며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판계개선을 고대하는 남조선인들의 반영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도전은 있지만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거예의 강렬한 열망에 떠밀려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려 한걸음에 있다. 견언에도 뒷걸음으로 철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판계개선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오늘의 한걸음이 레일의 백걸음, 천걸음의 의의있는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통일로 지향하는 진실적이고 방향으로 천진시켜나가는 걸마는 민족의 운명개척과 통일조국의 활활한 빛을 앞당기는 참된 애국의 길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마땅히 민족의 회화와 단합, 판계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미지하는 신의있는 대화, 평화와 통일의 협상으로 되어야 한다. 대화는 그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불신과 청탁을 풀어놓는 행위이다. 대화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쓰더러 범위를 벗어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북남관계에 어두운 면을 덮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례를 그대로 방임해 두는 경우 첫걸음에 불파한 화해와 협력의 귀중한 쪽은 편서리를 맞게 될것이다.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소통이 벌어지는

아니겠는가. 대회에 힘하는 자세와 힘장부터 옮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대회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의심부터 앞세우는 것은 진심으로 대회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 상대방의 성의를 새안경을 끼고 대하거나 이리저리 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민족의 윤명문제에 관심이 없고 민족공동의 리익이 아니라 저들의 협에 한 리익을 고집한다는 비난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문제는 북남사이의 대회와 판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불순세력의 춤동과 걸으면 모두 대회를 부르짖고 돌아온다는 상대방을 험뜰으며 대결적인 행동을 하는 남조선당국의 악습이다. 금강산에서 흥어진 민족, 천하상봉이 친형되고 평양에서 북남로동자축구대회의 통일열기가 분출하면 그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판계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매우 상서롭지 못한 언행과 몽동들이 그치지 않았다. 미제침략군의 학창공모를 『로날드 맨』호가 기억된 가운데 대구교현에 상기동훈장이 강행되고 북남이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대단하게 되었는지 알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도에 융려려는 것은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 재침야망이 비낀 참배놀음

북남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내외의 관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북파 남사이의 출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로동자축구대회는 판계개선의 소중한 밀기터미 되었다. 전쟁이나 평화를 판가름하는 위기 알발의 순간에 마련된 기회이기도 순번치 않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실이었기에 더욱 그려졌다. 지금은 애달로 북파 남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의 획기적 국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파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벌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오늘 북남관계가 확고히 판계개선의궤도를 타는가는 미는 전적으로 북파 남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린하는가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판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로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서 새롭게 써나가려는 의지를 안고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왔다.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여러 기회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좋은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회복, 협력의 키도 우는데서 없이 탈선하게 된 원인은 앞에서는 합의하고 들어았어서는 외세의 장단에 놓아나며 판소리를 하는 남조선당국의 모순적인 태도와 이중적인 자세에 있다. 협에 한 강정과 소소한 리익에 사로잡혀 민족의 밝은 장래에 저해를 주는 행위에 이제는 결단과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판계개선은 결코 어느 일방의 리익만을 위한 것이다.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에 협의의 웨침이다. 북파 남은 우리

속에서 판계개선을 위한 신의있는 북남 대화한 어불성설이다.

북파 남은 이미 자주통일을 위해 불신과 대결의 파괴를 파괴하고 민족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 국민을 열어놓을 경계를 가지고 대하거나 이리저리 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민족의 윤명 문제에 관심이 없고 민족공동의 리익이 아니라 저들의 협에 한 리익을 고집한다는 비난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

3 대 원칙을 온 세계 앞에 확약한 7. 4 공동성명의 발표는 반민족과 질시민이 런무하던 북남관계에 처음으로 자주통일의 서광을 빛쳐준 역사적사변이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 10. 4 선언의 발표는 북남관계에 있어 철학과 철학으로 북남관계를 대로로 대처하게 되었지만 북남관계는 판계개선을 위해 대답하게 앞으로 전진할 때에 윤명을 유발하는 일은 예상치 않았다. 미제침략군의 학창공모를 『로날드 맨』호가 기억된 가운데 대구교현에 상기동훈장에 걸려온 걸로는 북남이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대단히 전진하면서 북남관계에 대한 전망은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

제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

제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

제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

제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

제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환적제

제로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